

중증·응급 환자 중심 진료 인프라 강화

전북대병원, 호남권 유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선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선정,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진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북대병원을 포함해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과 안산병원, 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등 전국 8개 대형병원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회귀질환 등 난도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진

료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사업에 선정된 8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중증 및 응급 등 본래 기능에 적합한 환자에 집중하도록 진료구조를 전환하게 된다.

전북대병원은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 의료질 개선에 집중해 중환자실·응급실 등 중증 응급 환자 중심으로 치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병·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환자 및 특수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중심의 병상·인

력을 운용할 계획이다.

일반 응급환자 병상을 중증 응급환자 전용으로 전환하여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심뇌혈관·외상·고위험분만·중증소아 분야의 권역 내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진료 협력병원과 의료전달체계를 구축 및 확대하여 환자의 권역 내 협력병원 협진 및 회송을 활성화하고,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 질환 중심의 진료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진료 EMR 외래·입원 진료시스템에 중증·경증 환자 알림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전문의 및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 환경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밀도 높은 수련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임상과 수련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한다.

양종철 병원장은 “중증, 응급 환자 치료 인프라와 협력병원과의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진료 체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지난 29일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주시 장애인단체·시설의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와 보조사업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 지방보조사업 투명성 강화

전주시, 장애인단체·시설 대상 지방보조금 실무교육 실시

전주시는 지난 29일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주시 장애인단체·시설의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와 보조사업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지방보조금 정산 및 내년도 사업 진행에 대비해 지방보조사업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박은주 시 장애인복지과장이 교육을 맡아 진행했다.

교육은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꾸준히 강화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들이 놓치지 쉬운 최신 법규나 지침, 지방보조사업 교부금 신청·집행·정산 절차에 이르기까지 실무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시는 이날 교육에서 보조금 감사사례를 공유하며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참가자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박은주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단체 및 시설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의 집행 오류를 최소화하고, 강화된 관리기준에 따른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 지방보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대한민국 최고 미식도시 '전주' 극찬

내셔널지오그래픽, 전주 음식 조명·문화·역사적 정체성 소개

13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미디어인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콩나물국밥과 전주비빔밥, 막걸리 등 전주 음식을 조명하며 전주를 대한민국 최고 미식도시로 극찬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최근 'Why Jeonju is the best place to eat in South Korea(전주가 한국의 최고 미식도시인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남부시장의 콩나물국밥, 비빔밥, 막걸리, 전통차 등 전주의 대표 음식뿐만 아니라 예향 전주의 문화·역사적 정체성을 소개했다.

이 내용은 지난 20일 내셔널지오그래픽 온라인판(www.nationalgeo

graphic.com)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됐다.

특히, 이 기사에서는 전주비빔밥이 '조선 왕조의 역사와 전주의 문화적 유산이 녹아있는 요리'로, 전주는 '전통을 혁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는 요리사들이 있는 도시'이자 '한국인들이 찾는 미식도시'로 각각 평가됐다.

이상숙 국제협력담당관은 “연간 1500만 명이 방문하는 전주는 특히나 해외에서 한 번 방문하면 잊지 못하는 도시이며, 많은 글로벌 미디어와 세계적인 인사들이 전주의 문화와 음식, 예술 그리고 전주 사람



13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미디어인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콩나물국밥과 전주비빔밥, 막걸리 등 전주 음식을 조명하며 전주를 대한민국 최고의 미식도시로 극찬했다.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글로벌브랜딩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라는 도시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김재훈 기자

전주농기센터·전주푸드 직원들, 수확철 일손 도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30일 완산구 금상동에 위치한 친환경 하우스 농가를 찾아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농번기 인력난으로 합계온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일손 돕기를 추진했다.

이날 농업기술센터와 전주푸드 직원 등 30여 명은 상추와 토마토를 재배하는 하우스에서 상추 따기 작업과 토마토 코코피트 배지 교체, 잡초 제거 등 바쁜 농가의 일손을 거들었다.

전주지역 친환경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주로 학교급식과 공공 급식, 전주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공급돼 성

장기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급식과 시민들을 위한 안심먹거리로 제공된다.

이와 관련 시는 △친환경농업 기계화 지원 △병해충 방제 농약 공동살포 등 국가의 기반인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영농인력 절감,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친환경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가의 농산물 판로확보 및 소비처 발굴을 모색하는 한편, 일손 돕기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생산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30일 친환경 하우스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를 추진했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확철을 맞아 외국인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농촌인력 고령화 및 부녀화 등으로 일손이 없어 애를 태우는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일손돕기에 나

세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일손 돕기를 실시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농업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폭염·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소방공무원 포상휴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구급대원 노고에 박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도 묵묵히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장기화 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잘 대응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포상휴가를 시행한다.

이번 포상 휴가는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서 등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루가 부여된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8월 폭염 경보발령에 따른 지시 사항 알람을 통해 소방대원 건강관리와 안전사고에 유념할 것을 주문하면서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현장 소방대원을 알뜰히 살폈고,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직접 모색했다.

김 지사는 “지나여름 장마 기간 폭우 대응 활동에 연이은 폭염속에서도 적

극적인 현장 활동을 수행해 준 소방공무원과 의료계 집단행동의 장기화에도 도민의 생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구급대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포상휴가를 통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준 소방대원들의 피로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도민의 곁에서 안전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올해 여름(7월~8월) 4만7,186건의 출동을 나가 최근 5년간 출동과 비교했을 때 최대 출동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7월과 8월의 평균 출동건수인 4만3,160건에 비교하면 4,000여건 증가했다. 이상고는 현상으로 인한 별질 제거 출동건수 또한 작년 대비 3,600건 많았다.

/이만호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2023. 1. 1 시행

순창 고향사랑 기부제



순창 고향사랑 기부 어렵지 않아요!

- 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이 아닌 국민 누구나
- 어떻게?** 온라인 : 검색창에 “고향사랑 e음”
오프라인 : 농축협 및 농협은행
- 얼마나?**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 기부 불가)
- 기부혜택은** 세액공제 + 담례품
- 언제?** 2023. 1. 1 부터
- 뭘하는데?** 지역민의 복리증진 사업 추진

순창군 답례품은!

- 농축산물** 쌀, 농특산물꾸러미, 옥광밤, 딸기, 블루베리, 두릅, 양봉, 화분, 썬채소
- 가공식품** 순창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수제한과, 강정, 참두루 장아찌, 나물박치트, 청국장집
- 서비스(상품권 등)** 순창사랑상품권, 별초대행서비스 이용권, 권역 숙박시설 이용권, 장내 미생물 검사키트, 실랜드 방갈로 숙박권

내 고향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순창 고향사랑 기부로 함께해 주세요!



- NH 농협**
- 농협중앙회순창군지부장 이병희
 - 순창농업협동조합장 김성철
 - 동계농업협동조합장 양준섭
 - 구림농업협동조합장 김순용
 - 서순창농업협동조합장 설득환